

## 이청준 「이어도」의 서사구조에 나타난 사실과 허구의 변증법

주 지 영\*

### 요약

본고는 「이어도」의 서사구조를 상위 틀서사와 하위 틀서사가 결합된 이중 틀서사로 보고, 상위 틀서사의 화자-초점화자와 하위 틀서사의 초점화자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사구조가 주제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하위 틀서사는 선우 현 중위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우 현 중위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도를 둘러싼 네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선우 현 중위는 사실에 근거해서 사고하는 인물로, 이어도를 믿지 않는 외지인을 대표한다. 다음 양주호는 신문사 국장이지만 객관적 사실보다는 허구 속에 진실이 있다고 믿는 인물로, 이어도를 구원, 꿈, 희망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삶을 표상한다. 다음 여자는 천남석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섬을 떠나지 않고 이어도 소리를 하며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천남석은 이어도를 부정하고 섬사람에게 지워진 운명에 저항하고자 한다.

상위 틀서사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선우 현 중위의 이어도에 대한 생각이 이어도는 없다는 사실 중심의 사고에서 이어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사고로 변화하는 것에 주목한다. 다음으로 이어도 전설과 파랑도 소문을 소개하며, 천남석의 육신이 섬에 돌아온 것이 이어도의 운명을 거부하고 떠난 인물의 회귀라는 비범한 사건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화자-초점화자의 시선은 이어도 전설이 갖는 비가시적인 진실의 진정성과

\* 군산대 교양교육원 강의전담 교수

그 이면에 놓인 운명 거부의 현실적 갈망을 동시에 조망하는 효과를 낳는다.

주제어: 『이어도』, 서사구조, 사실과 허구의 변증법, 이중 틀서사, 상위 틀서사, 하위 틀서사, 화자-초점화자, 초점화자, 사실, 허구 속의 진실, 운명

목  
차

1. 서론
2. 하위 틀서사와 전설에 의한 운명 지배
3. 상위 틀서사와 믿음에 의한 사실의 전설화
4. 결론

## 1. 서론

1965년 퇴원으로 등단한 이후 이청준의 문학 세계는 초기에는 폭력적인 사회 체계를 비판하는 『소문의 벽』과 『언어사회학 서설』, 연작 같은 작품 계열과, 남도의 고향으로 표상되는 정서를 지향하는 『매잡이』, 『남도 사람』 연작 같은 작품 계열의 두 축으로 전개되다가, 『다시 태어나는 말』에서 두 계열이 통합되고 이후 『신화를 삼킨 섬』과 같은 장편소설로 나아간다.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이어도』(1974)는 『줄』(1966), 『매잡이』(1968)와 『남도 사람』 연작(1978~1980)의 중간 자리에 위치해 양자를 연결하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어도』에 대한 기존 논의는 초점화와 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1), 언어적 형식화 양상을 살피는 연구2), 낙원의식을 중심으로

한 연구<sup>3)</sup>, ‘섬’이 등장하는 작품을 묶어 공간의 특질을 밝히는 연구<sup>4)</sup>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이어도』의 특징과 의의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서사구조와 주제라는 양 측면을 동시에 아우르는 검토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서술자아’에 해당하는 초점화자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이 ‘경험자아’에 해당하는 초점화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로 인해 작품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짜임의 의도나 작

- 1) 천이두, 『이원적 구조의 미학』, 『한국문학과 한』, 이우출판사, 1985.  
권택영, 『이청준 소설의 중층구조』, 『외국문학』, 1986. 가을.  
성민엽, 『겹의 삶, 겹의 문학』, 『문학과 사회』, 1990. 여름.  
현길연, 『문제탐색을 위한 다층적 플롯』, 『이청준론』, 삼인행, 1991.  
이상우, 『이청준의 이어도 연구-초점화와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3권, 한국문예비평학회, 2003.12, 179-195면.  
장소진, 『사실적 탐색과 비약적 인식의 역학-이청준의 『이어도』를 대상으로』, 『어문연구』 32권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329-352면.  
이승준, 『이청준 소설의 역설 구조 연구-드러냄과 감춤 사이의 역설』,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2011.12, 81-102면.  
서형범, 『이청준 『이어도』에 나타난 인물들의 서사적 기능의 치환 양상 연구』,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12, 831-867면.
- 2) 백지은, 『이청준 『이어도』의 언어적 형상화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3, 125-148면.
- 3) 김종희, 『유토피아소설의 상상력과 현실의식-이청준의 『이어도』와 『비화밀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6권3,4호통합본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8, 386-400면.  
김정아, 『이청준 소설의 윤리학-탈근대적 민중공동체 복원을 향한 근원 사유』, 『현대문학이론연구』 52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31-48면.  
조명기,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과 로컬리티-『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3, 한국언어문학회, 2010. 6, 333-363면.  
나소정, 『유토피아에서 헤테로토피아로-이청준 소설의 섬 공간 연구』, 『한국문예창작』 16권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7. 4, 105-141면.
- 4) 이성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섬의 속성과 의미 고찰-『이어도』, 『섬』, 『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0권, 반교어문학회, 2015, 117-151면.

품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청준의 작품의 경우, 복잡한 서사 구조를 통해 다층적인 의미망을 형성하면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어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논자들이 동의하듯이 서사구조가 ‘겹의 구조’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여러 겹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청준 작품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면밀한 서사 구조 분석을 통해 작품의 구조적 특질을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주제 형상화에 기여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이어도』에 나타나는 틀서사와 초점화자를 통해 주제가 어떻게 형상화 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틀서사(frame structure)<sup>5)</sup>의 경우이다. 틀서사는 틀과 내부가 결합된 이야기이다. 틀을 a, 내부를 b로 볼 때, 단일 이야기가 결합된 틀서사는 ‘a+b+a’라는 구조를 취한다. 이 경우 기존의 ‘액자소설’ 형식으로 접근해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틀서사 구조가 복잡해 질 경우, 그 구조는 ‘a1+b1+a2+b2+a3’와 같은 배열 형태를 보여준다. 틀이 이분 이상으로 분리되고, 그 사이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틀서사의 측면에서 『이어도』의 서사 구조를 보면, 틀(a)은 기본적인 서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내부 이야기(b)와 결합되면서 이어도 전설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한편 내부 이야기(b)는 이어도와 관련된 사건을 두고 여러 등장인물의 다양한 반응 등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내부 이야기에 해당하는 b는 시간축과 관련해 b보다 앞선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 c와 d서사를 내포하는 또 다른 ‘틀’로 작동하고 있다. 기존의 ‘액자소설’의 형식과는 달리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서사

5) E. Goffman, *Frame Analysis*, New York: Harper Colophon, 1974, pp.560-576.

한일섭, 『서사의 이론-이야기와 서술』, 한국문화사, 2009, 105면.

가 짜여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누가 보느냐, 누가 말하느냐 하는 부분에 주목하여 작품의 서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는가, 그리고 서사의 층위를 달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미효과는 무엇인가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틀서사의 개념을 원용하고자 한다.

다음, 초점화자(focalizer)<sup>6)</sup>의 경우이다. 초점화자는 서술자가 하나의 특정 관점과 전망을 부여한 인물이다. 상위 틀서사와 하위 틀서사가 결합된 이중 틀서사<sup>7)</sup>는 각각의 초점화자를 지닌다. 상위 틀서사의 초점화자는 서술자의 서사내적 대리인으로서 서술자아의 측면이 강화된 것으로 이 초점화자는 상황을 종합하고 그것을 해석, 판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위 틀서사의 초점화자는 대상을 관찰하는 경험자아의 측면이 강하다. 이처럼 초점화자를 이원화시킨 것은 서술자가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도』의 경우, 서술자는 상위 틀서사의 초점화자에게 이어도 전설과 관련해서 그것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면서 상황에 대해 사유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이 초점화자는 서술자에 의해 특정한 관점(초점화)이 부여된 서술자아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초점화자를 ‘화자-초점화자(narrator-focalizer)’<sup>8)</sup>로 명

6) 초점화자는 초점화(focalization)의 주체로서 누가 보느냐와 관련된 시점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G. Genette,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212면.

7) 이청준 소설에서 이중 틀서사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은 대개의 경우 서술자아의 역할을 담당하는 초점화자가 이끄는 서사와 경험자아의 역할을 담당하는 초점화자가 이끄는 서사로 양분된다. 후자가 이끄는 서사가 작품의 중심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러한 중심내용에 해당하는 서사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은 전자가 이끄는 서사에 부여된다. 그런 까닭에 서술자아가 이끄는 서사는 일종의 의미의 심급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상위 틀서사로, 후자는 하위 틀서사로 명명하고자 한다.

8) Rimmon-Kenan은 외적인 초점화는 서술 행위자에 가깝게 느껴지는데, 이때 그 수단으로서 ‘화자-초점화자(narrator-focalizer)’가 제시된다고 파악하고 있

명할 수 있다. 또한 서술자는 하위 틀서사의 초점화자에게 이어도와 관련된 사건을 두고 여러 인물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하면서 특정한 관심사인 이어도 전설 이야기를 취재, 관찰하게 한다. 이러한 제한적 관찰자를 ‘초점화자’라고 명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점화자의 이원화는 이중 틀서사의 초점화자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주제를 강조하고, 동시에 그것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접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틀서사와 초점화자의 개념에서 『이어도』에 접근함으로써 틀과 내부가 어떻게 배열되고 구조화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서사에서 초점화자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구조적 장치가 어떻게 주제를 형성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하위 틀서사와 전설에 의한 운명 지배

『이어도』는 상위 틀서사와 하위 틀서사, 그리고 내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상위 틀서사는 서술자아에 해당하는 화자-초점화자의 시선에서 이어도 전설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하위틀 서사에는 세 개의 서사가 결합되어 있다. 첫 번째 서사는 현재의 시간 축에 해당하는 서사(b서사)로, 선우 현 중위가 양주호 국장과 여인을 만나 천남석 기자의 해상 실종사고를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서사는 현재와 가까운 과거의 시간 축에 해당하는 서사

---

다. 그에 따르면, 외적 초점화는 1인칭 서사물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화자와 작중인물 간의 시간적 심리적 거리가 최소한으로 짧을 때거나 스토리를 전달하는 인식의 주체가 경험자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서술자로서의 자아일 때 나타난다고 말한다. Rimmon-Kenan, Shlomith, 『소설의 현대시학』,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9, 134-135면.

(c서사)로, 선우 현 중위와 천남석 기자가 수색 작전 종료날 밤 배 위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서사는 현재와 먼 과거의 시간 축에 해당하는 서사(d서사)로, 천남석의 유년 시절과 천남석과 여인의 만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세 가지 서사에 담긴 내용은 모두 선우 현 중위를 초점화자로 하여 그의 시선에 의해 혹은 그가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의해 그려지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 작품은 화자-초점화자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상위 틀서사(a)와 초점화자인 선우 현 중위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하위 틀서사(b)의 결합으로 짜인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어도』의 서사가 상위 틀서사와 하위 틀서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위 틀서사와 이를 감싸고 있는 상위 틀서사를 분리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어도』의 서사 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1. 이어도 전설에 대한 믿음과 선우 현 중위의 도착
- b1. 선우 현 중위는 남양일보사의 양주호 국장에게 천남석 기자의 해상 실종사고를 보고함
- a2. 이어도 전설과 파랑도 소문
- c1. 선우 현 중위는 수색 작전 종료날 밤 배에서 천남석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함
- b2. 선우현 중위는 양주호를 따라 <이어도> 술집으로 가서 여인의 이어도 노래를 들음
- b3. 선우현 중위와 양주호는 천남석의 집으로 감
- d1. 천남석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
- b4. 양주호는 선우 중위를 천남석의 집에 남겨두고 감
- b5. 여인이 찾아오고 선우현 중위는 여인에게 천남석의 실종소식을 전함

c2. 선우현 중위는 갑판병으로부터 천남석의 실종 보고를 받음

b6. 선우현 중위와 여인이 몸을 섞음

b7. 선우현 중위는 새벽에 여자와 헤어져 나옴

d2. 여인의 내력

b8. 선우현 중위는 양주호를 다시 찾아가

a3. 선우현 중위가 떠남. 천남석의 시신이 섬으로 돌아옴

이처럼 이 작품은 상위틀서사와 하위틀서사가 중첩되고 뒤섞여 있는 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각 서사의 연결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b서사는 선우 현 중위와 양주호 국장, 그리고 ‘이어도’ 술집의 여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사건을 담아낸다. 이들은 천남석 기자와 관련을 갖고 있는 인물로, 이어도 전설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선우 현 중위는 ‘과량도 수색작전’에서 천남석 기사를 만났으며, 천남석 기자의 실종 사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섬으로 온 인물이다. 선우 현 중위는 천남석 기자의 직속상관인 양주호 국장을 만나 천 기자의 실종사건 소식을 전하고(b1), 양주호 국장의 안내로 ‘이어도’ 술집으로 가서 천남석과 밤을 함께 보낸다는 여자를 만나고(b2) 천남석 기자의 집으로 가서(b3, b4) 천남석의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고(b5, b6, b7), 다음날 양주호를 다시 만난 후(b8) 섬을 떠난다.

선우 현 중위는 철저히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다.

b2. 천남석의 자살이 사실로 확인될 수 있다면 그의 실종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의 부대에 바칠 수 있는 공헌은 오히려 둘째 문제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자체였다. 무슨 일에 대해서나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는 선우 중위의 사고방식은 그것이 곧 그의 주장이자 공인다운 미덕이었다. 사

실예의 봉사는 언제나 중위를 즐겁게 했다. 사실을 밝혀야 했다. 그는 적지 아니 사명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사실을 알지 못하면 천 기자의 자살은 믿을 수 없었다.<sup>9)</sup>

이어도와 파랑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수색 작전의 결과 이후 선우 현 중위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오로지 천남석의 죽음이 자살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에게 있어 이어도는 실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그는 파랑도 수색 작전과 관련하여 인지한 정보 내에서도 이어도 전설이나 파랑도 소문에 대해 알고 있을 뿐이다. 그가 관심을 두는 것,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실' 뿐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이어도 전설이나 파랑도 소문은 사실로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여겨진다.

반면 양주호는 선우 현과는 전혀 상반된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신문사에서 국장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신문사를 나서면 전혀 태도가 달라진다.

b2. 양주호는 이날 저녁 처음부터 태도가 예상 외로 거칠었다. 편집국 문을 나서면서부터 갑자기 한 신문사의 국장다운 구석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치 상습 알코올 중독자의 그것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을 했다. 커다란 몸집이 오히려 체신머리가 없어 보일 만큼 언동이 무질서해지고 있었다. 뭔가 실종경위 같은 걸 듣고 싶어 술 자리를 청한 것 같았는데, 그는 이내 그 중위를 붙잡게 된 동기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린 듯했다.<sup>10)</sup>

양주호는 신문사의 국장이지만 편집국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그런 모습을 벗어나고 알코올 중독자, 혹은 폐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9) 이청준, 「이어도」, 『이어도』, 열림원, 1998, 74-75면.

10) 위의 책, 74면.

버린다. 그는 이어도의 전설을 믿고 있으며, 사실 관계의 확인 없이 천남석 기자의 자살을 단정짓기도 한다.

b8. “예감을 신용했다기보다 그만큼 난 천남석이 스스로 그의 섬을 찾아갔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래도 녀석을 그의 섬으로 보내고 싶어하질 않는 것 같았어요. 끝끝내 그의 자살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던 말입니다.”

“전 사실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실의 확인 없이 그의 자살을 믿어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 사실이라는 걸 단념하십시오. 사람들은 때로 사실에서보다는 허구 쪽에서 진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중략) 그리고 아마 어젯밤부터 내가 당신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당신에게서 바로 그 사실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을 포기시키는 일이었을 겁니다.”<sup>11)</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선우 현 중위와 양주호 국장은 천남석의 자살과 이어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선우 현 중위의 말은 철저히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양주호의 말은 ‘비약과 영감투성이의 열변’으로 여겨진다. 선우 현은 천남석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그의 자살을 믿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이어도는 ‘파랑도 수색작전’ 결과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 반면 양주호는 천남석이 스스로 이어도를 찾아갔을 것이라 믿고, 그런 믿음에서 천남석이 자살했을 것이라 예감한다. 또한 그는 그런 의미에서, 가령 구원이나 꿈, 희망의 의미를 지닌 이어도의 전설을 믿으면서, 이어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더 산다고 생각한다.

이들 두 사람의 태도가 상반된 까닭은 선우 현 중위는 섬의 바깥

11) 위의 책, 120-121면.

에서 온 사람이고, 양주호 국장은 섬사람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선우 현 중위는 이어도의 전설이나 이어도 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한 반면, 양주호 국장은 제주도 섬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이어도 소리를 들으며 그 섬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이들이 이어도에 대해, 그리고 천남석의 자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따라서 선우 현 중위는 섬 바깥, 곧 외부에서 ‘이어도’를 ‘존재한다/존재하지 않는다’의 ‘사실’의 차원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양주호 국장은 섬 내부의, 곧 제주도 섬사람으로서 ‘이어도’를 사실의 차원이 아닌 허구의 차원, 그리고 그 허구의 진실이 말하는 ‘꿈’과 ‘구원’의 측면에서 믿는다. 그는 ‘존재한다/존재하지 않는다’의 차원이 아니라 ‘믿는다/믿지 않는다’의 차원에서 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양주호가 선우 현 중위를 ‘이어도 술집’으로 안내하는 것은 ‘존재한다/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선우 현 중위의 생각을 바꿔놓으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어도〉 술집’의 여자는 선우 현 중위로 하여금 제주도 섬사람들의 실제 삶의 양태를 스스로 경험해보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b6. 중위가 한참 더 정신없이 지껄여대며 여인을 학대하고 난 다음이었다. 여자에게서 마침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우 중위로선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괴한 반응이었다, 여인의 입술에서 문득 희미한 웅얼거림 소리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신음 같기도 하고 한숨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마치 제주도의 바닷가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바다 울음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그 웅얼거림은, 그러나 자세히 들여보니 이어도, 그 오랜 제주도 여인들의 슬픈 민요가락이었다. 중위는 그만 번쩍 정신이 되돌아왔다. 불시에 등골에서 식은 땀이 솟고 있었다. 천남석의 어머니도 남편이 수평선

을 넘어오는 날이면 비로소 그 걱정스런 밤의 어둠 속에서 이어도를 만나곤 했다던가. 선우 중위는 잠시 멀어져 가는 듯싶던 환각들이 일시에 다시 방안 가득 밀려들어 오는 듯한 착각 속에 모질게 다시 힘을 모두어 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sup>12)</sup>

인용문 b6에서는 선우 중위와 ‘여자’(천남석의 여인)가 밤을 함께 보내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 b6 서사 단위에서, 선우 중위는 여자와 밤을 보내면서 천남석의 어린 시절 배를 타고 나갔던 천남석의 아버지가 수평선을 넘어 돌아오는 날 밤 이어도를 만나곤 했다는 천남석의 어머니의 삶을 떠올린다. 그리고 여자 또한 천남석의 어머니처럼 이어도 노래를 부른다. 이를 통해 선우 중위는 환각 속에서 이어도를 만난다. 그러는 가운데 선우 중위는 섬사람들의 운명을 어렵듯이 깨닫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두려움은 천남석과 그의 여자의 삶을 자신과는 무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던 선우 중위가 스스로 그 삶 속에 뛰어들어 자신 또한 이어도 전설과 관련된 삶에 포섭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 결과 이어도 여인을 통해 선우 중위에게 이어도와 관련된 섬사람들의 운명적 삶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양주호의 의도가 달성된다.

다음 c서사를 보자. c서사에서는 선우 현 중위와 천남석이 ‘과랑도 수색작전’을 위해 승선한 배 위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c1)과 술자리가 과하고 다음날 선우 현 중위가 천남석의 실종 보고를 받는 내용(c2)을 담아내고 있다. 이 서사단위는 현재의 바로 직전에 벌어진 가까운 과거의 시간 축에 속하는 이야기로서 선우 현 중위의 시선을 통해 과거 회상의 방식으로 서술된다.

12) 위의 책, 106면.

c1. “하지만 섬사람들이 어차피 배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었다면, 이어도의 존재야말로 그 사람들에게겐 커다란 위안이 아니었겠소. 배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이어도는 그 사람들의 구원이 아니었겠느냐 말입니다.”

선우 중위가 모처럼 한마디 끼여드는 소리에 천남석은 느닷없이 발각 화를 내기까지 했다.

“배를 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라뇨?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타고난 운명이 어디 있단 말요. 운명은 타고나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섬이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도의 환상이 그 허망한 마술로 사람들을 섬에서 떠나지 못하게 묶어놓고 끝끝내 배만 타게 만들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길고 짧은 생애들을 고스란히 이 섬 위에서 견디게 했다가 종내는 그 죽음의 섬으로 가없는 생명들을 흘려가곤 한 거란 말이에요.”<sup>13)</sup>

선우 현 중위와 천남석은 ‘이어도’와 ‘파랑도’에 대해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다. 선우 현 중위는 이어도라는 전설에 근거하여 파랑도의 ‘실재’를 찾아나선 수색작전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반면, 천남석은 이어도의 허구가 파랑도라는 또 하나의 ‘허구’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색작전이 끝나고 파랑도나 이어도 모두 허황스런 소문의 섬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천남석과 선우 현은 ‘구원의 섬’으로서 이어도에 대해 또다시 상반된 생각을 드러낸다. 선우 현은 배를 타야 할 운명을 가진 섬사람들에게 이어도의 존재는 커다란 위안이었을 것이라 여긴다. 천남석은 이어도가 ‘저승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이어도의 꿈이 있어 현세의 고된 질곡들을 참아낼 수 있다’는 섬사람들의 믿음에 의해 구원의 섬으로 여겨지면서 섬사람들을 섬에서 떠나지 못하는 운명으로 묶어두었다고 여긴다. 곧 선우 현은 배를 타야 하는 섬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위안이 필

13) 위의 책, 71면.

요하다고 생각하고, 천남석은 구원이라는 위안이 섬사람들로 하여금 현세의 질곡을 감내하고 견디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운명을 순응해야 할 것으로 여기느냐, 거부 혹은 저항해야 할 것으로 여기느냐의 문제에 있어 두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다. 선우 현은 '미래'의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천남석은 '현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c2에서 선우 중위는 천남석과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 갑판 근무병으로부터 천남석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이어도가 사람을 홀린다는 것이다.

c2. 냉담스러워지고 싶은 것은 그의 말뿐이었다. 우정 말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면서도 그는 너무도 이야기에 열심이였다. 이야기를 좇고 있던 그의 표정 역시 너무도 열심이였다. 그는 때때로 자신의 이야기에 너무도 자세한 데까지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얼굴 표정이 갑자기 이상하게 일그러지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견디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끈질긴 싸움 끝에도 그리고 입으로는 제법 냉담스럽게 이어도의 존재와 의미를 부인하고 싶어하면서도 그 싸움에는 끝끝내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았다.<sup>14)</sup>

천남석은 이어도의 존재와 의미를 '말'로는 부인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진다. 천남석은 선우 중위에게는 이어도를 부정적인 어조로 이야기하지만, 갑판 위에 나가서는 이어도를 찾는 사람처럼 폭풍우가 이는 바다를 보며 넓이 훌쩍 흘러나가 버린 듯 꿈쩍하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이어도를 부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어도에 홀리고 마는 것이다. 이 장면은 운명을 거부하고자 하지만 운명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

14) 위의 책, 102면.

는 천남석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d서사는 천남석의 유년시절(d1)과 천남석의 여인의 내력(d2)을 천남석의 이야기와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한다. 여기에서 선우 현은 이야기를 듣는 위치에 있다.

d2. 여자는 처음부터 자기 내력조차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여자의 부모는 그녀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렸을 때 이미 수평선을 넘어가 버렸고(천남석이 그랬듯이 여자도 번번이 그렇게 말했다), 여자가 아직도 희미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그녀의 어린 오라비는, 좀더 나중에 그가 혼자서 배질을 할 수 있을 만큼 팔힘이 올랐을 때 다시 그 수평선을 넘어가 버렸다.<sup>15)</sup>

천남석과 여인의 이야기는 제주 섬사람들의 보편적인 내력을 담고 있다. 그들은 바다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공통적인 내력을 공유한다. 바다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죽어간 어머니와 관련된 내력을 갖고 있는 천남석, 바다로 떠나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와 오빠에 관련된 내력을 갖고 있는 여자가 그러하다. 제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된 내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이어도 노래는 운명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습관이자 버릇이 되어 제주민의 의식 밑바닥에 자리 잡는다.

이러한 d서사에서 주목할 것은 천남석과 여자의 관계이다.

천남석은 여인으로 하여금 섬을 떠나게 하기 위해 참으로 무참스런 수모도 서슴지 않았던 것 같았다. 천남석은 여인에게 두 가지 해괴한 버릇을 숙명처럼 길들여 놓고 있었다. 여인이 섬을 떠나지 않는 한 잠자리에서 언제나 그 이어도의 노랫가

15) 위의 책, 107면.

락을 읊조리도록 한 것이 그 첫 번째였다. 그리고 천남석이 여인에게 길들이고 있었던 두 번째 작업은 그녀의 미래 운명에 관한 것이었다. 여인은 언젠가 자기의 사내인 천남석이 다시 섬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때 반드시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남자에게 옷을 벗도록 해놓고 있었다.<sup>16)</sup>

천남석은 자신의 여자가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두 가지 버릇을 길들여두고 떠난다. 첫 번째는 '섬을 떠나지 않는 한 잠자리에서 언제나 이어도의 노랫가락을 읊조리도록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천남석의 죽음과 관련된 소식을 갖고 돌아오는 남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천남석의 '무참스런 수모'와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어도와 관련된 전설이 살아 숨 쉬는 섬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앞서 분석한 b6에 나타나 있다. b6에서 선우 중위는 천남석처럼 여인을 '괴롭히고' 수모를 주지만 여자는 침묵으로 견디며 이어도 노래를 부른다. 이는 여자가 선우 중위와 함께 섬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곧 여자는 천남석의 학대와 선우 중위의 학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섬사람들처럼 이어도 전설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섬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d서사는 섬사람들의 내력이 담긴 이야기로, 배를 타고 수평선을 넘어가는 천남석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과, 섬에 남아 이어도 노래를 부르며 떠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천남석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섬을 떠나라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어도 노래를 부르면서 이어도의 전설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이어도가 섬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섬사람들을 홀릴 수 있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16) 위의 책, 109면.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면서 전개되는 「이어도」의 하위 틀 서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어도를 둘러싼 네 가지 입장들이다. 하위 틀서사는 선우 현 중위를 초점화자로 내세워 천남석, 양주호, 여자를 만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우 현 중위는 철저히 사실에 근거해서 사고한다. 실재와 가상을 구분하고 이어도나 파랑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 여긴다. 그에게 이어도는 가상의 섬인 셈이다. 그는 예감이나 믿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여긴다. 이처럼 선우 현 중위는 ‘사실’을 중시하고 그것에 기반하여 사리판단을 하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초점화자로 내세움으로써, 이어도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조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어도를 둘러싼 섬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자. 먼저 양주호 국장은 이어도를 구원이자 꿈, 희망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삶을 표상한다.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섬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실이나 사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 속에 진실이 있다고 믿으며 살고자 한다.

선우 현과 양주호와의 만남에서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은 제주도 사람들이 이어도 전설에 대한 믿음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양주호의 직업이 신문사 국장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사실보다 전설에 대한 믿음을 더 신뢰하는 양주호의 모습은 이어도 전설이 얼마나 뿌리깊이 섬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좌가 된다.

다음으로 선우 현과 여자와의 만남에서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이다. 천남석은 여인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여인을 학대하고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에게 몸을 맡기라는 새로운 버릇을 길들였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천남석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운명으로 나타난 선우 중위의 학대를

견딘다. 그리고 섬을 떠나지 않고 자신에게 운명처럼 지워진 학대를 견디기 위해 ‘이어도 노래’를 부른다. 그럼으로써 섬사람이면 그 누구나 이어도 전설을 굳건히 믿고 있듯 여자는 이어도 노래를 부름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견디고 있음을 강조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선우 현의 시선을 통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선우 현과 천남석과의 만남에서 드러나는 객관적 사실은 천남석이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자 하였으나 그럴수록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과 초조감에 시달렸다는 점이다. 천남석은 이어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냉담스런 말을 쏟아냈지만 어릴 적부터 이어도 소리와 노래에 길들여진 그로서는 이어도에 홀리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 이처럼 천남석은 말로는 냉담하게 부인하고 저항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두려움과 초조감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에는 폭풍우 치는 밤바다에 흘러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이른다. 이러한 천남석의 모습이 선우 현의 시선에 포착됨으로써 운명을 거부하고자 하는 천남석의 의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천남석을 사로잡는 이어도 전설의 마력이 드러난다.

### 3. 상위 틀서사와 믿음에 의한 사실의 전설화

하위 틀서사는 이어도 전설을 둘러싼 제주도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이를 선우 현이라는 ‘사실’을 중요시하는 외부인의 시선에 의해 포착하게 함으로써 이어도 전설을 내부와 외부의 관점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위 틀서사를 다시 상위 틀서사(a)와 결합시켜 놓는다.

상위 틀서사(a)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a1. 이어도 전설에 대한 믿음과 선우 현 중위의 도착
- a2. 이어도 전설과 파랑도 소문
- a3. 선우 현 중위가 떠나고 여러 날 후 천남석의 시신이 섬으로 돌아옴

a1, a2, a3는 섬의 내력을 보여주는 내용을 화자-초점화자의 시선에서 담아내고 있다. 화자-초점화자는 선우 현 중위가 섬에 도착하는 장면과 떠나는 장면을 모두 바라보고 있으며, 선우 현 중위가 떠난 뒤 한참 후에 천남석의 시신이 섬으로 돌아온 것도 보고 있다. 그리고 화자-초점화자는 이어도의 전설과 뱃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파랑도의 소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화자-초점화자를 통해 이 작품은 이어도 전설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어도』의 도입부 첫머리에 해당하는 a1에 제시된 네 문장의 에피그램은 ‘이어도’의 전설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 a1. 긴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 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sup>17)</sup>

이 에피그램은 ‘섬은 있다’를 전제로 삼고 있다. 이 진술은 ‘섬을 본 사람은 섬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섬을 본 사람은 섬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전설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섬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전설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진술인 것이다.

a2에서는 이어도 전설과 파랑도 소문을 요약 서술하고 있다.

17) 위의 책, 53면.

a2. 언제부터가 이곳 제주도 어부들에게선 이어도가 아니라 그 이어도와 비슷한 또 하나의 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파랑도에 대한 소문이었다. 파랑도의 소문은 이어도하고는 달리 좀더 구체적이고 널리 퍼져나갔다. 망망대해 어느 물길 한 굽이에 갯빛 파도를 깨고 솟아오른 파랑도의 모습을 보았다는 어부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중략) 사람들은 마침내 이어도의 전설을 생각해냈다. 옛날부터 이 바다의 어디엔가는 이어도라는 섬이 숨어있다는 구전이 전해 내려오는 터이었다. 이어도에 관해서는 언젠가 그것을 보았노라는 사람의 전설도 남아 있고 아직 제주도 일대에는 그 이어도에 관한 분명한 민요까지 남아 있지 않느냐. 이어도의 전설은 아마 파랑도의 실재에서 비롯된 제주도 사람들의 구전에 의한 또 다른 전설의 하나일 것이다. 파랑도의 실재 가능성은 이어도의 전설로 하여 좀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a2는 이어도 전설을 믿느냐 의심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어도가 현실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원에서 접근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현실에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이어도가 아니라 이어도 전설에서 파생된 파랑도 소문에 대한 것이다. 파랑도 소문은 이어도 구전과 그것을 보았다는 사람의 전설과 민요의 존재에 힘입어 실재 가능성을 검증받기에 이른다. 이는 전설에 대한 믿음이 사실, 실재에 기반한 시선에 의해 끊임없이 의심받고 간섭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a3에서는 천남석이 이어도로 갔다고 여기는 여자와 양주호와 선우 현의 생각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천남석의 육신이 섬으로 돌아온 사실을 덧붙인다.

a3. 선우 중위가 작전 선단으로부터 전령선을 타고 섬을 떠 나간 지 열흘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파랑도 수색작전을 끝내

18) 위의 책, 68면.

고 돌아온 해군 함정들이 항구를 떠나 기지로 돌아간 다음 바다는 며칠째 텅텅 비어 있었다.

<이어도>의 여자는 아직도 섬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남양일보사 양주호 편집국장은 아직도 시간만 끝나면 그 이어도의 술집으로 가서 폐인처럼 술을 마셔대며 여자의 노랫가락에 취해 있곤 했다. 하지만 양주호는 이제 그 천남석의 체온이 묻은 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의 이야기는 다시 입에 올리는 일이 없었다. 여자나 양주호에겐, 아니 어쩌면 이미 이 섬을 떠나간 선우 현 중위에게서마저도 천남석은 이제 영영 자신의 섬 이어도로 간 사람이 되고 만 듯싶었다. 천남석은 이어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밤사이 바닷가에 불가사의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나 있었다. 천남석이 마침내는 자기의 섬을 떠나 이어도로 갔을 거라던 양주호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을까. 아니 그 양주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천남석 자신은 그 사나운 폭풍우 속에서 끝끝내 그 이어도엔 도달할 수가 없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가 그토록 떠나고 싶어했던 이 섬을 거꾸로 이어도로나 착각한 것이었을까. 이어도로 갔다던 천남석이 동지나해에서 그 밤 파도에 밀려 홀연히 다시 섬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기이한 일이었다.

그러던 더욱더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조화는 그 여러 날 동안의 표류에도 불구하고 천남석의 육신은 그 먼 바닷길을 눈에 띄는 상처 하나 없이 고스란히 다시 섬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아침해가 돌아오를 때까지도 그 심술궂은 썰물 물끝에 엎혀 용케도 다시 섬을 떠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sup>19)</sup> (밑줄, 강조: 인용자)

양주호는 파랑도 수색작전에 합류해 배에 올랐던 천남석이 실종된 사건을 두고 “그럼 우리 이제 그 천남석이란 잔 그렇게 자신의 섬을 찾아간 걸로 해줍시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양주호가 말하는 ‘자신의 섬’은 바로 ‘이어도’를 의미한다. 양주호는 천남석이 자살

19) 위의 책, 122-123면.

했을 것이고, 그렇게 자신의 섬 이어도를 찾아갔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러한 양주호의 추측에 의해 위의 진술은 여전히 전설의 차원에서 참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진술과 양주호의 추측은 부정된다. 천남석의 시신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천남석이 이어도로 가버렸다’는 양주호의 진술을 ‘사실’의 차원에서 반박한다. 또한 ‘아무도 다시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는 텍스트 첫 머리의 진술을 뒤집는 증거가 된다.

화자-초점화자의 시선에서 이러한 사실은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 세 가지 가정으로 갈무리된다. 첫 번째 가정은 양주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곧 이어도 전설에 대한 부정, 이어도의 실재에 관한 의심이다. 두 번째 가정은 천남석의 운명에 대한 항거와 관련된 것이다. 섬을 본 사람은 모두가 섬으로 가버렸는데 천남석은 돌아왔다, 천남석은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을 끝끝내 거부하고자 했으므로 ‘이어도에 도달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세 번째 가정은 천남석이 제주도로 돌아온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곧 ‘천남석에게 이어도는 이어도가 아니라 제주도이다’라는 가정이다. 이어도가 구원의 섬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천남석에게 구원의 섬은 이어도가 아니라 제주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텍스트 첫 머리에 제시된 내용과 텍스트 말미에 제시된 내용은 화자-초점화자의 의도된 전략 아래 놓여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텍스트 첫 머리에 제시된 내용은 섬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진술이라 할 수 있고, 텍스트 말미에 제시된 내용은 그 믿음에 의해 부여된 운명을 사실의 차원에서 의심, 반박하는 진술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어도」의 하위 틀서사만으로도 제주 섬사람들이 이어도를 어떠한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상위 틀서사가 필요했을까. 화자-초점화자의 시선을 통해 선우 현이 섬에 도착하고 떠나는 과정을 서술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을 고려할 때 상위 틀서사의 화자-초점화자의 시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역할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화자-초점화자의 시선을 통해 선우 현이 섬에 머무는 동안 선우 현의 생각이 바뀌는 과정을 포착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둘째, 전남석의 육신이 돌아온 것을 그려내는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독자로 하여금 섬의 내력이나 섬의 현실에서 그 사실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인가를 추측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의 역할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이어도』에서 화자-초점화자는 선우 현이 섬에 들어오고 떠나는 것을 관찰한다. 그리고 선우 현의 동선을 따라다니며 사실 우위의 선우 현 중위의 인식이 섬사람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그들의 운명을 이해하고 ‘이어도’에 부여된 허구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선우 중위는 ‘사실’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도깨비 장난’ 같은 일을 연거푸 겪는다.

보기에 따라서는 도깨비장난 같은 수색이었다.<sup>20)</sup>

양주호는 벌써 지팡이를 휘두르며 중위를 앞장서 걷고 있었다. 선우 중위는 다시 한번 도깨비 장난 같은 짓에 자신이 홀려들기 시작한 기분이었다.<sup>21)</sup>

선우 중위가 무엇인가 홀려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 것은 물론 그런 황량스런 집안 몰골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남석의 집에서는 또 한 가지 예기치 못했던 일이 선우 중위

20) 위의 책, 54면.

21) 위의 책, 87면.

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선우 중위가 먼저 이 집으로 와서 그 도깨비 장난 같은 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편이 옳을 는지도 모르겠다.<sup>22)</sup>

여자를 보자 그는 점점 더 머릿속이 어리둥절해질 뿐이었다. **영락없이 무엇에 홀려들고 있는 기분이었다.**<sup>23)</sup> (강조: 인용자)

‘도깨비 장난’ 같은 일은 ‘파랑도 수색 작전’, ‘〈이어도〉 술집’에 간 일, 천남석의 집에 간 일로 제시된다. 그리고 선우 중위는 도깨비 장난 같은 일을 겪으면서 ‘무엇에 홀려들고 있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b1에서부터 b5에 이르기까지 반복된다. 그리고 선우 현 중위의 이어도 전설에 대한 인식은 그런 감정과 마주할 때마다 한 단계씩 변화한다.

이어도에 대한 선우 중위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은 네 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로 사실조사에 입각한 판단이다.

“작전 지역 안에는 파랑도라는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sup>24)</sup>

이어도에 관한 이야기는 파랑도 수색 작전이 시작되기 전서부터 충분한 조사가 행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이어도는 실상 작전의 한 간접적인 동기가 된 섬의 이름이기도 했다. 그것은 이를테면 오랜 세월 동안 이 제주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 전설의 섬이었다.<sup>25)</sup>

선우 중위는 천남석이나 양주호가 이어도와 파랑도를 혼동한다고 생각한다. 이어도는 전설의 섬이고, 파랑도는 실제 가능성이 있는 소문의 섬이다. 수색 작전은 파랑도를 찾는 것이므로 파랑도와 이어

22) 위의 책, 97면.

23) 위의 책, 99면.

24) 위의 책, 57면.

25) 위의 책, 65면.

도를 혼동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우 중위의 이해는 그가 들은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이미 조사 단계에서 이어도 전설에 대한 정보를 얻어 알고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선우 중위는 천남석으로부터 이어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번에도 또 이어도가 이야기의 실마리였다. 실마리뿐만 아니라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온통 이어도와 그 이어도와 상관해서 기억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회상뿐이었다.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이어도였다. 무척도 긴 이야기였다. 그리고 듣고 있던 선우 중위까지도 나중엔 어떤 기묘한 감동 같은 것으로 몸을 떨었을 만큼 절망적인 이야기였다.<sup>26)</sup>

선우 중위는 수색 작전 중 배 위에서 천남석으로부터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이미 선우 중위가 이어도에 대해 정보를 들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어도 이야기를 반복해 듣는 것이다. 이때 이어도 이야기는 천남석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그리고 천남석 주변 사람들의 회상으로 전달된다. 선우 중위는 이어도에 관한 천남석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기묘한 감동’을 느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선우 중위는 천남석의 집으로 가서 ‘이어도’ 술집의 여자인 천남석의 여자와 몸을 섞으며 이어도 노래를 듣고 환각을 경험한다.

이어도가 사람을 홀리는 마술을 지닌 섬이라면, 그리고 그 이어도의 부재가 확인된 순간에 천남석이 비로소 그의 섬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양주호의 말을 신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천남석은 아난계아니라 그날 밤 그 이어도에 홀려 스스로 그렇게 섬을 찾아가 버린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26) 위의 책, 72면.

그 이어도가 이번에는 우연히나마 그 천남석 기자의 죽음을 쫓게 된 선우 현 중위에게까지 엉뚱스런 마력을 뺏치기 시작한 것일까. (중략)

방안은 칠혹 속이었다. 칠혹 같은 어둠 속 어딘가에 사고가 있었던 날 밤의 그 천남석의 눈초리가 무섭게 중위를 노려보고 있었다.

양주호의 커다란 웃음소리가 그 어둠 뒤쪽 어딘가에서 기분 나쁘게 깔깔대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치올라 오는 언덕배기 자갈밭에선 한 아낙의 가난하고 암울스런 노랫가락이 아직도 바닷소리에 묻어오고 있었다. 바닷가 자갈밭에 펼쳐 세운 그물코 사이로는 아직도 그 옛날의 바람소리가 쇠쇠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 선우 중위는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너무도 역력하게 보고 있었다. (중략)

중위는 그만 번쩍 정신이 되 돌아왔다. 불시에 등골에서 식은 땀이 솟고 있었다. 천남석의 어머니도 남편이 수평선을 넘어오는 날이면 비로소 그 걱정스런 밤의 어둠 속에서 이어도를 만나곤 했다던가. 선우 중위는 잠시 멀어져 가는 듯싶던 환각들이 일시에 다시 방안 가득 밀려들어 오는 듯한 착각 속에 모질게 다시 힘을 모두여 여자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기분 나쁜 환각들을 쫓기 위해서는, 여자의 그 끝없는 침묵을 끝내 주기 위해서는 그 여자의 소리를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여자의 노랫가락도 점점 더 분명하고 안타까운 가사로 여물어져 가고 있었다.<sup>27)</sup>

선우 중위는 천남석을 통해 천남석의 고향 마을의 정경에 대한 이야기와 천남석의 아버지가 섬으로 돌아온 이후 어머니와 잠자리를 할 때 들려오는 이어도 노랫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은 바 있다. 선우 중위는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그가 천남석의 집에 갔을 때 천남석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의 장면이 천남석의 여자를 통해 고스란히 재연된다. 선우 중위는 천남

27) 위의 책, 104-106면.

석의 사연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스스로 경험하는 가운데 환각까지 보게 되는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 이어도 전설에 대한 선우 중위의 이해가 깊어진다. 그리고 천남석이 섬에 홀려 자살했을 것이란 양주호의 추측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신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품게 된다.

네 번째 단계에서 선우 중위는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

“결국 국장님께서도 처음부터 별로 자신은 못 가지고 계셨군요.”

“아닙니다. 난 처음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난 처음부터 당신의 그 사실이라는 걸 포기하고 있었으니까.”

“저에게서도 그게 포기될 수 있을까요?” (중략)

“그럼 우리 이제 그 천남석이란 잔 그렇게 자신의 섬을 찾아간 걸로 해줍시다.”

여자나 양주호에겐, 아니 어찌면 이미 이 섬을 떠나간 선우 현 중위에게서마저도 천남석은 이제 영영 자신의 섬 이어도로 간 사람이 되고 만 듯싶었다.<sup>28)</sup>

선우 중위는 배를 타기 전 양주호를 만나러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주호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인받는다. 선우 중위는 ‘사실’을 포기하고, 천남석이 이어도로 갔을 것이라는 양주호의 생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화자-초점화자의 시선을 통해 선우 현 중위가 섬에서 겪은 일들이 ‘도깨비 장난 같은’ 일, ‘홀려드는 기분’ 등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실상 선우 현 중위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은 이야기의 반복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이 아니면 믿지 않겠다는 선우 중위의 태도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흔들린다.

28) 위의 책, 121-122면.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여러 번 일어나는 동안 그것은 일종의 신념과 같은 믿음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상위 틀서사에서 화자-초점화자의 두 번째의 역할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이어도에 홀려 자살했던 천남석은 생전에 이어도를 저주했던 것처럼 죽음의 섬으로 가지 않고 육신으로나마 섬에 되돌아온다. 이 사건은 화자-초점화자에 의해 ‘불가사의한 일’, ‘기이한 일’, ‘더욱 더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조화’로 제시된다. 이러한 표현은 전설의 영역에서 언급될 법한 서술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 즉 천남석의 육신이 돌아온 사건에서 언급되고 있다. 여자나 양주호, 심지어 선우 현 중위에게서까지 천남석은 ‘이어도로 간 사람’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천남석이 육신으로, 그것도 훼손되지 않은 채로 섬에 돌아온 것은 ‘불가사의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

화자-초점화자의 이와 같은 어조는 천남석의 육신이 제주도로 돌아왔다는 새로운 사실에 특별한 효과를 붙여넣는다. 섬사람들은 이어도 전설에 관한 이야기나 이어도 노래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종의 ‘습관’이나 ‘버릇’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어도 전설에 대한 믿음에 길들여진 섬사람들은 섬에 돌아온 천남석의 육신을 이어도 전설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천남석이 돌아온 사건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섬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건은 사실에 입각해 사실 자체만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이어도 전설’과 관련된 사건일뿐더러, 이어도의 운명을 거부하고 떠난 인물의 회귀라는 비범한 사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섬사람들에게 ‘사실’로서만 남겨지기는 어려울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파랑도 소문처럼 ‘소문’이 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전설’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어진 운명에 저항하고자 했던 천남석이 ‘기이한’ 이야깃거리가 되어 돌아온 것임은 분명하다.<sup>29)</sup>

화자-초점화자는 천남석이 섬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천남석은 이어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전설의 이야기거리’로 남게 될 것인지 어떠한 것도 단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운명에 저항한 자로서 천남석의 ‘신이한’ 이야기가 새로운 믿음의 소재로 섬사람들에게 자리하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선우 현 중위는 반복하다시피 되풀이되는 이어도 이야기와 섬에서의 일련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꿈과 위안의 기표로서 ‘이어도’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화자-초점화자의 시선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도’로 갔을 것이라고 믿었던 천남석이 시신으로 제주도에서 되돌아온 것을 알려준다. 그럼으로써 천남석이 갈망했던 운명에의 저항을 현세의 삶에서 죽음으로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화자-초점화자의 시선은 이어도 전설이 갖는 비가시적인 진실의 진정성과 그 이면에 은폐된 운명 거부의 현실적 갈망을 동시에 조망하는 효과를 낳는다.

#### 4. 결론

이청준의 『이어도』는 겹의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대한 언급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나 겹의 구조가 주제 형상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이를 밝히기 위

29)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신화를 삼킨 섬』과의 상호텍스트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어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신화를 삼킨 섬』에서 ‘아기장수 설화’와 관련된 대목을 연상시킨다. 김통정이나 김방경의 지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설화의 옷을 입고 제주민들에게 구전된다. 운명에 저항하고 구원의 섬으로서의 이어도를 부정하는 천남석의 자살과 천남석의 육신이 섬으로 되돌아 온 사건은 지배자의 폭정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성을 떠올리게 한다.

해 『이어도』의 서사구조를 상위 틀서사와 하위 틀서사가 결합된 이중 틀서사로 보고, 상위 틀서사의 화자-초점화자와 하위 틀서사의 초점화자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사구조가 주제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하위 틀서사는 선우 현 중위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우 현 중위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도를 둘러싼 네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선우 현 중위는 사실에 근거해서 사고하는 인물로, 이어도를 믿지 않는 외지인을 대표한다. 다음 양주호는 신문사 국장이지만 객관적 사실보다는 허구 속에 진실이 있다고 믿는 인물로, 이어도를 구원이자, 꿈, 희망으로 여기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삶을 표상한다. 다음 여자는 천남석의 학대를 통해 섬을 떠나지 않으면 이어도 소리를 하며 살아가도록 길 들여지는 인물이다. 여자는 천남석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섬을 떠나지 않고 이어도 소리를 하며 운명을 견디고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천남석은 이어도를 부정하고 섬사람으로 운명지워진 삶을 부정하고 그러한 운명에 저항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 상위 틀서사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선우 현 중위의 이어도에 대한 생각이 이어도는 없다는 사실 중심의 사고에서 이어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사고로 변화하는 것에 주목한다. 다음으로 상위 틀서사의 화자-초점화자는 이어도 전설과 괴담도 소문을 소개하며, 천남석의 육신이 섬에 돌아온 것이 이어도의 운명을 거부하고 떠난 인물의 회귀라는 비범한 사건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화자-초점화자의 시선은 이어도 전설이 갖는 비가시적인 진실의 진정성과 그 이면에 놓인 운명 거부의 현실적 갈망을 동시에 조망하는 효과를 낳는다.

## ■ 참고문헌 ■

### 1. 기본자료

이청준, 「이어도」, 『이어도』, 열림원, 1998.

### 2. 단행본

한일섭, 『서사의 이론-이야기와 서술』, 한국문화사, 2009.

E. Goffman, *Frame Analysis*, New York: Harper Colophon, 1974.

G. Genette,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Rimmon-Kenan, Shlomith, 『소설의 현대시학』,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9.

### 3. 논문

권택영, 「이청준 소설의 중층구조」, 『외국문학』, 1986. 가을.

김정아, 「이청준 소설의 윤리학-탈근대적 민중공동체 복원을 향한 근원 사유」, 『현대문학이론연구』 52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31-48면.

김중희, 「유토피아소설의 상상력과 현실의식-이청준의 「이어도」와 「비화밀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6권 3, 4호통합본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8, 386-400면.

나소정, 「유토피아에서 헤테로토피아로-이청준 소설의 섬 공간 연구」, 『한국문예창작』 16권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7. 4, 105-141면.

백지은, 「이청준 「이어도」의 언어적 형상화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0,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3, 125-148면.

서형범, 「이청준 「이어도」에 나타난 인물들의 서사적 기능의 치환 양상 연구」, 『한민족어문학』 65, 한민족어문학회, 2013. 12, 831-867면.

성민엽, 「겹의 삶, 겹의 문학」, 『문학과 사회』, 1990. 여름.

이상우, 「이청준의 이어도 연구-초점화와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13권, 한국문예비평학회, 2003.12, 179-195면.

이성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섬의 속성과 의미 고찰-「이어도」, 「섬」, 「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0권, 반교어문학회, 2015, 117-151면.

- 이승준, 『이청준 소설의 역설 구조 연구-드러냄과 감춤 사이의 역설』,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2011.12, 81-102면.
- 장소진, 『사실적 탐색과 비약적 인식의 역학-이청준의 『이어도』를 대상으로』, 『어문연구』 32권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329-352면.
- 조명기,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낙원의식과 로컬리티-『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3, 한국언어문학회, 2010. 6, 333-363면.
- 천이두, 『이원적 구조의 미학』, 『한국문학과 한』, 이우출판사, 1985.
- 현길언, 『문제탐색을 위한 다층적 플롯』, 『이청준론』, 삼인행, 1991.

<Abstract>

## Reality and Fiction Dialectic by Double Frame Structure in Lee Cheong-jun's *Ieodo*

Joo, Ji-Young

This study looked at the narrative structure of *Ieodo* as the double frame structure combined the top frame structure and the subordinate frame structure. Accordingly, this study considered *Ieodo* centering around the narrator-focalizer of the top frame structure and the focalizer of the subordinate frame structure. Based on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decided that the narrative structure of *Ieodo* is formed as an internal form to embody themes and tried to bring light on this.

The subordinate frame structure embodied the context that was drawn by Seonwoo-hyoun. This context had different fourth opinions about the definition of *Ieodo*. Seonwoo-hyoun as stranger believed the facts and unbelieved *Ieodo*. Yang-juho as director of newspapers believed the truth in fiction and regarded *Ieodo* as rescue, dream, hope. The woman had lived in singing *Ieodo*'s song and had been not leaving the island in spite of Cheon-namseok's abuse. Cheon-namseok's denied *Ieodo* and resisted the fate imposed on islander.

The top frame structure has played two roles. Firstly, this structure suggested the transition of Seonwoo-hyoun's thought that the negative of *Ieodo* had been changed into the belief of its. Secondly, introducing



the legend of Jeodo, this structure suggested Cheon-namseok's body that denied the fate of Jeodo but returned to the island. Consequently, the top frame structure has the effect of simultaneously viewing the real truth of Jeodo legend and the craving for a denial of fate.

Key words: *Jeodo*, narrative structure, reality and fiction dialectic, double frame structure, top frame structure, subordinate frame structure, narrator-focalizer, focalizer, facts, truth in fiction, fate

투 고 일 : 2018년 5월 10일    심 사 일 : 2018년 5월 14일-5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8년 6월 26일